

# 연안어장 정화 안정적 추진을

‘어업인들, 자식 같은 배를 버린다’

지난달 한 일간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지 르포기사에서 어업인들은 자주 나타나는 적조현상, 해파리 불가사리의 기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무분별한 연안개발, 기름값 상승 등으로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어서 어선을 없애버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중심선상엔 연안어장의 오염이 자리잡고 있다. 수산자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떠나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상당수 어업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연안 앞바다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자신의 생활터전인 탓도 있겠지만 언젠가 나아지리라는 실낱 같은 희망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안어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연안어장을 포기하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얼마 후엔 근해어장의 조업포기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더욱 그 이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재해, 다시 말해 어장 오염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태라면 이는 결단코 막아야지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자그마치 약 8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은 연간 약 1만 톤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수거량까지 모두 포함 한 것이니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한국해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해양쓰레기 총 적체량은 무려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통계가 2004년 자료이니 3년 여가 흐른 지금은 이보다 크게 늘어났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결국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속적이면서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이 업무가 다

소 혼란스럽게 되었다. 과거 모든 수산행정을 총괄했던 해양수산부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농림수산물부와 국토해양부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우리 협회가 시행해 오던 업무 중 연안어장 정화업무는 국토해양부 관할로 되었다.

관점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업무든 간에 업무의 유기적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연안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와 어업인과 관련된 각종 업무,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는 이제 농림수산물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독 연안어장 환경정화업무만 국토해양부가 주관 부처가 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유기적 연관성에서 볼 때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이런 일련의 어장정화사업이 12해리 영해 내측의 연안어장과 양식어장 보호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돼 있는 수산업진흥과도 연관돼 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업무는 농림수산물수산부 업무로의 조정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모든 식량 자원이 무기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수산자원 역시 머잖아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좀더 선명한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산자원에 관한 한 비교우위에 놓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무기화,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사분란 하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바로 그런 틀을 염두에 두고 연안어장 정화사업업무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만약 주요 연안어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환경개선 추진으로 인하여 수산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틀이 마련된다면 이는 국익에도 크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